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마가복음 · 출애굽기
구역예배
담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월의 결심



사람들은 새해의 밝아오는 태양을 보며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다지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결심은 지난 해, 아니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자신과의 약속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태양조차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전 1:9~10).

그러므로 해 아래서 새 것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것 밖에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창조! 이것만이 진실로 새로운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군의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진실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던 주님의 열정이 노인으로부터 작은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염되어서 모두 다함께 ‘요엘’의 찬송을 부르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렐 2:28~32).

2003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출애굽기 서론

출애굽기는 창 15:13,14에 계시된 바 하나님의 출애굽 약속이 모세의 소명과 여호와의 10대 재앙을 통해 성취되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다루는 레위기, 그리고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와 모세의 회고 기록인 신명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오경(五經)의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출애굽기는 출애굽 대사건 이후 시내 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2대 사건 즉,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창세기적 족장의 역사와 수치스런 노예 민족의 역사를 벗어나 어엿한 하나님의 신정 국가(國家神政)로서 근동의 현실 역사 속에 공식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 특별히 장자(長子)로 선택된(4:22) 제사장 나라(19:6)인 것이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애굽과 시내산을 주요 무대로 삼아 서술한 책이다.

본래 본 서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웨엘레 쉘모트'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두 단어로서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의 이름들(이나라)"이다. 여기서 이름들이란 야곱과 더불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가리킨다(1:1-5).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LXX)에서 본 서의 이름을 '엑소도스'로 표기하였다. 이 제목은 본 서의 중심 내용(19:1)을 근거로 하여 붙인 제목으로서, '나감', '출발', '탈출'이란 뜻이다. 그 이후 각국의 성경에서는 이를 그대로 채택, 음역(音譯)되어 오늘날 '엑소더스'(Exodus)라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경은 본래 한 묶음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이다. 그것이 나중에 오경의 자체의 논리적 구분과 내용상의 구별로 인해 편의상 다섯권으로 나뉜 것 뿐이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저자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모세'이다.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 서의 기록 연대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B.C. 1446년(출애굽 원년) 이후로부터 B.C. 1406년(모세의 임종)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본 서의 기록 목적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언약(창15:13-21)에 근거하여, 마침내 그것

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 되었다.

둘째, 구속사의 핵(核)이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셋째, 아울러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출애굽기에는 무엇보다도 유월절 사건이(12:1-51) 가장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유월절 어린양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 5:7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말로써, 그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식사는 주님의 성만찬을 암시하는 구약적 사건이다. 특별히 본 서의 핵심 인물인 모세는 그의 3대 직분-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자요, 입법자요 중재자란 면에서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다.

내용분해

제1부 : 출애굽 역사/1:1-18:27

1. 압제받는 이스라엘/1:1-4:31
2. 모세와 바로의 대결/5:1-7:13
3. 여호와와의 10대 재앙/7:14-11:10
4. 유월절과 엑소더스/12:1-15:21
5. 광야의 인도와 보호/15:22-18:27

제2부 : 시내산의 언약

1. 율법의 언약 계시/19:1-24:11
2. 성막의 계시/24:12-31:18
3. 금송아지 숭배 사건/32:1-34:35
4. 성막의 제작/35:1-39:43
5. 성막의 봉헌/40:1-38

본 장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구약부터 예언된(사 53:4-6절) 그 길을 걷습니다.

1-11절에서 주님은 삼백 데나리온(300일간의 노동자 품삯)이나 하는 값진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붓는 여인을 보고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9절). 12-31절에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 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2-42절에서는 겟세마네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힘써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43-72절에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 투성이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향유로 장사를 예비하는 여인, 유월절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일, 제자들의 흠어짐, 주님은 이미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홀로 그 길을 걷기에는 너무도 힘드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걷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견뎌내고 고백하십니다. 홀로 지시기에 너무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갑시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갑시다.

기도 제목 / 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 걷게 하옵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통치하는 가장 큰 왕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 땅의 작은 왕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 1:11)라는 성경이 그대로 옹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군병들이 만왕의 왕을 능멸합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옷을 벗깁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멸시를 보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향해 이와 같은 모욕을 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비난하는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왕을 능멸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그 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그들이 더욱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 무지하고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주님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여자들이 천사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부활의 소식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그렇게 예측 불허는 아닙니다. 부활은 약속이자 예언이었습니다(마 16:21, 막 8:31, 9:9).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믿음의 장담만 하였습니다(막 14:2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 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대반전입니다. 아무도 예측치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부활이 이루어짐으로써 복음의 핵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소식이 '헛것' 이라고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고전 15:14).

부활의 소식은 위낙 위대하기 때문에 지체되어서는 안되는 소식입니다. 효과적으로 세계 만방에 퍼뜨려야 할 긴급한 소식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이를 빨리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음질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온 세계 끝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이 소식 널리 전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센 땅에 온 야곱 가족은 고작 70명이었지만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중노동을 시키지만 더욱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진 애굽왕은 산파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합니다. 애굽왕이 왜 이렇게 다급해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400여년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 하셨습니다(창 15:13-14).

모래 바람만 날리는 황무지 같은 땅을 주시며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당시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믿고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섭리에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손이 예정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모판(摹板)에 자라던 모를 이앙(移秧)시키기 위해서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제 그 일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불같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되고,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세계 최강국이던 바로의 왕궁에서 준비됩니다. 친모이자 유모인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과 해야 할 일을 교육받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에 분노하여 애굽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목동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 교육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괴로워하십니까? 너무 조금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친 막대기 같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정금처럼 되어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 교육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현재의 역경이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는 훈련이라면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집트 왕자가 아닌 초라한 양치기로 있을 때 소명(召命)을 받습니다. 모세는 당황합니다. 그 젊은 시절 자기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부르시지 않고 80세가 되어 기력이 쇠하였을 때 사용하시겠다니 당혹해 하는 것입니다. 아니, 화가 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11절). “내가 누구관대…”라는 말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늙어 보잘것없는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12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14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리라”(19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안되고 상황이 안되어도 소명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와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거듭해서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징과 피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며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거둬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저하며 변명하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동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려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집념어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에게 있어서 지나친 겸손은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 무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순복하는 것이 바로 소명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굴복한 모세는 애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대언자 역할을 할 그의 형 아론을 만나고 그의 동족 히브리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성취할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와 바로왕의 1차 면담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로왕이 냉담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해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히 11:27).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빌미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왕의 생각은 일을 더 힘들게 하여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척 바쁩니다. 과중한 일의 부담으로 인하여 주일성수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기도 제목 / ① 큰 믿음을 주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로가 아무리 완강하여도 하나님의 손은 더욱 강합니다.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거듭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찍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며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너무 완강하며 백성들의 마음도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외로이 순종할 따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힘들고 고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듭 재촉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29절).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드릴 뿐입니다(3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새해에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세는 바로와 두 번째 만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선봉에 선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위엄 앞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나이는 각기 80세와 83세였습니다(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라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베포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내며 도전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술객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행하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강박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면 그것은 마침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기며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단 말입니까?

바로왕의 교만은 마침내 자신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나라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거역함과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8장은 7장에 이어서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바로왕의 강박한 마음에 따라 점점 더 극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계속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싫어하여 그 마음이 더욱 더 굳어졌습니다.

10대 재앙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왕을 굴복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재앙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예표인 것입니다. 10대 재앙은 모두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애굽인들이 이 우상으로 섬기던 대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본래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섬기던 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거짓 우상에 매여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심판은 9장에서도 계속됩니다. 1-7절은 악질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생축에게 임한 이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여전히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8-12절은 독종 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역사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부터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11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3-35절은 우박재앙과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까지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14절).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역 곧 전염병으로 애굽을 쳤다면 바로왕의 생명은 당장에 끊어졌을 것입니다(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16절).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합 3:2).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대로 용납하시면서 그에 대응하여 점차 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그 구원 능력이 그들의 먼 자손에게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바로처럼, 오늘날 사탄도 동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분 순종이 아닌 전체적인 순종을, 일부분 삶이 아닌 전체적인 헌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입니까(1-11절)? 천지와 만물들, 메뚜기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들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속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십니까(12-20절)?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며 떳떳하고 당당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매사에 이런 든든한 후원자를 가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21-29절).

모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제물로 쓸 동물들까지 요구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25-26절). 모세가 아무런 군사력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모르는 불신자와 자녀의 귀에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손의 귀에 전하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지막 열 번째의 재앙은 여호와께서 직접 행사하는 심판으로서, 곧 모든 초태생을 멸하는 무서운 죽음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오직 “애굽 가운데만” 임하는 것입니다(46절).

여기서 애굽은 어린양의 피가 없는 불신 세상과 그 속에 거하는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최후 심판 날, 보좌 왼쪽에 위치한 염소의 무리인 것입니다(마 25:41-46). 비록 현재로서는 세속의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지만, 조만간 애굽은 전무후무한 큰 곡성만이 터져 나올 죽음의 곳이요,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는 멸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신앙인은 신령한 눈으로 이 사실을 바로 보고, 결코 멸망의 도시 애굽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의 큰 곡성과는 달리, 이스라엘 위에는 평온만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7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각 집에는 어린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2:23).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또한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최후 심판 날 보좌 오른쪽에 위치한 양의 무리인 것입니다(마 25:31-40).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평안한 삶을 삽시다. 어린양의 피가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리고 스스로 어린양의 피를 굳게 의뢰하고 있는 한 평온 중에 생명의 은총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만이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분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율법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종이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도 죄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묻어 있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8-10). 내 신분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 대신 죽은 어린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칠일 동안 무교절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의 능력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유월절 의식을 통해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유월절 어린양의 피,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당신은 진정 믿음으로 어린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기도 제목 / ① 나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출생 근원을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 설명하셨던 하나님은(1-16절)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가나긴 여정 동안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두셔서 친히 그들을 보호, 인도하심을 확연히 보여 주셨습니다(20-22절).

하나님은 아직 전쟁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 백성의 연약을 아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블레셋 길의 요새에는 애굽 국경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계심을 믿고 불안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시다(17,18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이적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이며, 백성들이 질서 정연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분입니다(요 16:13).

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安然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② 교회 각 분에게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수단이 애굽에게는 심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홍해의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예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다시 흑암과 광명으로 그들을 갈라놓았고, 바로의 군대가 자기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뒤에서 보호해 주기도 하십니다(19-20절). 참으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닷물이 흥흥하게 뛰놀지라도, 사방의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고, 택한 백성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구속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물세례”에 비유했습니다(고전 10:1-2). 곧 과거 애굽의 종살이하던 옛 이스라엘은 물 속에 장사되었고, 이제 물로써 정결케 된 새 이스라엘의 탄생, 즉 “거듭남”의 사건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홍해 사건은 택한 백성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요 구속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땅, 물, 벽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데에는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데에는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여호와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의 멸망을 보면서, 구원의 생생한 환희와 승리의 벅찬 감격을 아름답고 장중한 시적 표현으로 생생하게 노래한 부분입니다. 구성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남성 합창대의 찬양송(1-18절)과 미리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부녀 합창대의 화답송(20-21절)으로 되어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내 아비의 하나님”(2절)을 찬양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 군대의 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 갈 수 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최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1-5절). 진정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도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최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구원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영원히 기쁨의 찬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제 생애 전부를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에 시작하여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계속하여 내려주신 만나의 시작과 그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원망하는 무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4절, 8절). 백성들은 거둬드는 광야 여정에서 그들의 음식이 없음을 한탄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사랑으로 응대하시며 하늘로부터의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을 약속하셨고, 또 곧바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셨습니다(1-20절). 제 육 일에 각 사람이 갑절의 만나를 거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어 안식일 규례를 가르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21-30절).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대대로 간수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증거물을 기념케 함으로 그것을 자손 대대에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31-36절).

거친 나그네 길을 상징하는 광야 40년 생활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고 그 만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한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여야만 생명을 유지하며 결국 구속의 최종 목적지인 약속된 천국에 들어감 수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던 중 발생한 두 사건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며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다가(1-7),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닛시'의 신앙고백을 하며 끝마칩니다.

마라에서 있었던 갈증으로 인한 불평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출 15:22-26) 이스라엘은 또 다시 갈증에 못 이겨 불평의 목소리로 물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석처럼 굳어있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으심으로써 그들이 지닌 모든 문제와 갈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임을 묵묵히 일깨워 줍니다(1-7절).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으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앞에 아말렉이 이르러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여호와 닛시'의 신앙고백을 합니다.

출애굽으로 광야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끊임없이 지속됨을 보여주듯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극적 순간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모든 순간마다 동참하시고 백성을 보호해 주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읍시다.

기도 제목 / ① '여호와 닛시'의 신앙 고백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고 찾아와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방 선교의 장을 마련합니다. 한편 모세는 경륜을 겸비한 장인에게서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언을 얻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 출애굽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전함으로써 이드로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10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11절)는 참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업무의 비능률적인 면을 충고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다시 한 번 권고하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23절).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드로의 충고대로 시행합니다. 결국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인이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확신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수 2:8-21).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롬 10:7). 오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신앙고백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일어나 빛을 발하는 총천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 출발인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 먼저 언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전반부(1-9절)와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자로서의 자세를 각성시키고 언약의 내용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위로 나아가는 후반부(10-25절)를 보여줍니다. 시내산 언약 사건은 그것 자체가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에도 그러했듯이 선한 공로나 탁월한 영적 고결성 등을 전혀 지니지 못한 이스라엘 무리들을 선민 즉 “제사장 나라”(6절)로 삼으신 것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에 앞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10-15절). 이유는 성결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제1 선행 조건이며(고후 6:14-18),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2:1-6).

이스라엘의 준비가 완료되자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한 지존자이심을 보이시고(시 97:4),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명확히 부여해 주십니다(16-25절). 하나님은 언약체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명하십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앞두고 몸도 마음도 절제함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준행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으십니까?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성결한 심령으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단순히 외형적인 성결만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소서. ② 감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 백성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 장은 시내산 율법 수여의 첫 부분으로서 1-17절은 영원한 도덕의 기준인 십계명(Decalogue)조항 기록이며, 뒤의 22-26절은 종교생활과 관련된 의식 율법입니다.

시내산 율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과 그 영적 의미를 같이 합니다. 구속사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요 16:33).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언약의 신적기원을 밝히는 것(1절)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언약준수의 당위성을 제시한 후에(2절) 언약의 총칙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선포합니다(3-17절). 이 십계명은 이어지는 제법규들(20:22-23:33절)의 대원칙이며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로 크게 대신관계를 다룬 네 가지 계명(3-11절)과 대인관계를 다룬 여섯 가지 계명(12-17절)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2대 계명으로 요약됩니다(마 22:37-40).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22-26). 그것도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고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시다.

율법은 정죄와 심판의 법이기 이전에 사랑과 신뢰의 법임을 깨달읍시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출애굽기 20장-23장은 보통, 언약의 책이라 불리는데, 그 중에서도 본 장(21장)은 생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성도들은 각 율법의 세부 조항 자체보다는 그 율법 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렘 31:3).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또는 형벌상 노예로 전락한 종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시한 인권보호에 관한 지침을 보여줍니다(1-11절). 이어 인권과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제시됩니다(12-17절). 이 같은 사형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과 권위를 모독 훼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중범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 본문에는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18-32절)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33-36절), 그 각각에 해당하는 처벌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해(同害) 보복법이 적용되는데(신 19:21),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실현하고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요소요소에서 불의와 악행이 서슴없이 자행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율법 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읍시다.

기도 제목 / ① 범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5절까지는 이웃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며, 16-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문란죄에 관한 법률이며, 21-31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법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은 구속사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는 그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는 세 부분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1-15절).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6-20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 성결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경제적, 사회적인 보호 대상자들에게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21-31절). 우리는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민 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23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키 위한 재판 제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규정한 법규(1-9절)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실제로 적용될 안식에 관련된 법규(10-13절), 각종 절기 관련 법규(14-19절) 및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순종과 헌신과 성결의 법규와 약속들이 소개되었습니다(20-33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9절).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을 법정으로 인정하시고 송사의 규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0-19절). 즉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 등의 의식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20-23절).

우리는 재판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합니까? 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영적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24장은 하나님과 그의 친 백성이 될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본문을 나누어 보면 언약체결과 그 방식에 대한 계시(1-2절)와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3-6절) 및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서약과 피뿌림을 통한 언약 체결(7-11절), 성막모형에 대한 계시등을 위해 제2차로 모세를 시내 산에 등정하게 합니다(12-18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명실 공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11절). 둘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12-18절).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잇는 중보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은 사귀는 시간을 가지십니까(12-18)?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된 우리는 얼마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25장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바칠 것(1-9절)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물이 될 법제의 식양에 대한 계시(10-22절), 지성소에 안치될 진설병 상의 양식에 대한 계시(23-30절) 및 어두운 성소를 밝힐 금 촛대의 식양에 대한 계시(31-40절)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처 소이자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나 신령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의미는 첫째,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올바른 헌금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즐거운 마음이어야 합니다(2절). 둘째, 성막 증거궤의 오늘날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10-22절). 셋째, 성소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23-30). 넷째, 등대는 어두운 밤에 성소를 비취는 역할을 합니다(31-40).

오늘날 우리는 헌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악의 늪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소에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을 나누면 성막 제일 안쪽에 덮는 제 1양장(1-6절),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제 2양장(7-13절), 또 그 위를 덮는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 덮개(14절)에 관한 식양과 성막의 뼈대를 이루어 성막을 지탱시켜 주게 될 48개의 널판에 관한 식양(15-30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의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될 두 개의 휘장에 관한 식양(31-37절)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광야 여행 중에 적합한 이동식 임시 성소입니다. 이는 결국 완전하고 영구한 성전이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약 계시 곧 율법의 그림자적이고 예표론적인 역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막의 양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장은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품격을 의미합니다(1-6절). 우리는 광야의 성막을 몸으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양장은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의미합니다(7-13절). 셋째, 양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14절).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양장은 인류 구속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희생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본받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으로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27장은 성막의 바깥 부분 곧 성막 뜰에 위치하게 될 거룩한 기물과 성물 뜰의 울타리에 관한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 장을 나누어 보면 피흘림이 있는 제물 제사를 위해 절대 필요한 번제단에 관한 식양(1-8절)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소의 안 곧 성막 뜰과 바깥을 구분하는 성막 울타리에 관한 식양(9-19절), 및 등유 제작과 사용법(20-21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막 뜰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성막의 출입구 맨 앞쪽에 번제단이 위치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즉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는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맞게 헌신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번제단 앞에 서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있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본받아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이 깃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의 식양과 각종 부속 성물들의 식양이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28장은 성막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백성들의 각종 제사와 하나님과의 친교를 도울 신인(神人)사이의 중보 역할을 담당할 제사장에 관련된 계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단을 구분하면 대제사장의 성의 제작 준비(1-5절), 대제사장의 성의에 관한 세부 규례(6-43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같이 존귀한 우리에게 제사장의 성의가 보여주는 영적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같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 화려함이나 위엄 이전에 그 속에 담긴 성결과 거룩에의 요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성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의 의복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존귀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매우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때가 잔뜩 묻은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한 예복과 곧은 마음가짐으로 나갔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오늘의 성찬식

•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전 11:23~27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갖고 부드럽게 이어서 찬송합니다.
(무거운 느낌이나 지나치게 느린 템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 빠르게 ♩ = 100

가사의 발음 분명하게



1. 주 예 수 해 변 서 떡 을 때 사
2. 생 영 의 말 씀 인 나 의 주 여
3. 내 주 여 진 리 의 말 씀 으 로
4. 성 령 을 내 맘 에 보 내 셔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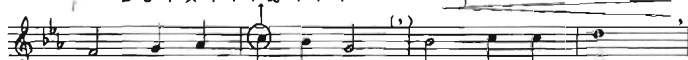
가사의 운율에 유의하세요.



무 리 를 먹 이 어 주 심 갈 이
목 말 라 주 님 을 찾 나 이 다
사 슬 에 얹 매 인 날 풀 으 사
내 어 든 영 의 눈 밝 히 시 사

'음정이 낮아지지 않게 주의

점점 세계 찬송하며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 생 의 양 식 을 나 에 게 도
해 변 서 우 리 를 먹 임 갈 이
내 망 에 평 화 를 누 리 도 록
말 씀 에 감 추 인 창 진 리 를

*절정: 힘차게

여기도 가사의 운율에 유의



품 족 히 나 누 어 주 음 소 서
갈 금 한 내 심 령 채 우 소 서
영 원 한 생 명 을 주 음 소 서
깨 달 아 알 도 록 하 음 소 서

차분하게 마무리
아 멘

들어가면서(서론)

이번 주일은 2003년 새해의 첫 주일로서, 성찬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 일입니까. 사실 모든 성찬 예배는 언제나 새로운 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성례를 일년에 여섯 번, 주일 낮 다섯 번의 모든 예배 시간에 시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의식(儀式)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예식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찬의 시간은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성찬예식을 만드시던 첫날밤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사랑을 다시금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의 새로운 헌신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주의 식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은 아니며, '충현교회'에만 홀로 존재하는 예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재림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운다.
- ② 성찬식을 위하여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전서 11장 23절~27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 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23절 - 주께 받은 것

② 24절 - 내 몸

③ 25절 - 내 피

④ 26절 - 마실 때마다

⑤ 27절 - 죄

2. 다음주일 설교('오늘의 성찬식')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주께서 잡히시던 날을 되돌아보며'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구속적 관점).

② '내면을 바라보며'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찬식에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성화적 관점).

③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찬식에서 교회 바깥을 바라보며 할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선교적 관점).

④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찬식에서 바라보아야 할 미래의 일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종말론적 관점).

나가면서(결론)

1. 여러분은 이번 주에 시행되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눌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은총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예식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 ②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죄 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 ③ 성찬식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소서.
- ④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 ⑤ 성찬식을 통하여 복음의 감격과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제목:

본문:

제 2 과

다 내게로 오라

• 찬송 / 32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본문 / 마 11:28~30

한마디를 이와같이 두 박으로 해서 맑고 우아한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 | | | | |
|----------------|---------|---------|---------|
| 1. 자 비 한 주 께 서 | 부 르 시 네 | 부 르 시 네 | 부 르 시 네 |
| 2. 고 달 파 지 친 자 | 쉬 라 시 네 | 쉬 라 시 네 | 쉬 라 시 네 |
| 3. 주 께 서 지 금 도 | 기 다 리 네 | 기 다 리 네 | 기 다 리 네 |
| 4. 주 님 의 소 리 를 | 들 어 보 라 | 들 어 보 라 | 들 어 보 라 |

같은 가사를 3번 반복하여 노래하지만
매번 다른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곳에 있더라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된
것이지요.
이점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찬송해 보세요.



사 랑 의 햇 빛 을 왜 버 리 고 점 점 더 멀 리 가 니
무 거 운 짐 진 자 다 나 오 리 쉬 게 해 주 시 리 라
죄 짐 을 가 지 고 다 나 오 라 어 서 주 앞 에 오 라
그 이 름 믿 는 자 복 받 으 리 어 서 곧 일 어 나 리

두번 반복되는 '지금오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것보다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힘차게 시작

권면의 감정을 담아서



자 비 한 주 께 로 지 금 곧 나 아 오 라
탄력있게 불러져야 할 리듬(완~짜잔)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 이 지구상에서 참된 위로와 보살핌을 베푸는 말씀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귀중한 구절들은 안식을 누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 그리고 심지어 과학에서도 인간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평안과 안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인간의 영혼을 더욱 호된 시험에 던져 놓고, 철학과 사상은 방황하게 만들고, 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나태하고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만이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와 철학과 사상 그리고 과학은 절망적인 인간이 시작하고 썩은 물을 담고 있는 인간이 제안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인간에게 내려진 근본적인 절망에 대해 배운다.
- ② 인간에게 제공된 참된 안식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마태복음 11장 28절~30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28절a - 수고하고 무거운 짐

② 28절b - 쉬게

③ 29절a - 나는

④ 29절b - 배우라

⑤ 29절c - 마음이

⑥ 30절 - 쉽고, 가벼움

2. 다음주일 설교('다 내게로 오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그 고통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현실에서 직면하는 고통과 그 영향력).

② '모든 시대,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의 영혼의 상황(마 9:36, 11:3, 11:16~17, 11:20~24 참고)과 인간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영혼이 직면하는 고통과 절대적인 필요).

③ '인간의 방황과 초청'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의 방황의 이유와 그러한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초청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④ '인생의 본질'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방황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창 3:19 참고),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인간의 반응).

⑤ '지속적인 안식으로의 초청'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⑥ '예수 안에만 있는 참된 안식'에 대한 단원일 읽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끔찍스럽고 죄가 많으며,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가장 나쁜 죄를 범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전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나의 삶에 본질적인 고통과 수고를 인정하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소서.
- ③ 주의 안식을 전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3 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 찬송 / 276장(하나님의 진리 등대) • 본문 / 시 67:1~3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물에 빠져 헤매이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불을 켜서 이 세상을 비추며 헤매이는 이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부정리듬과 이어지는 유려한 선율은 풍랑이는 바다와 이를 비추는 복음의 꽃빛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 하 나 님 의 진 리 등 대 길 이 길 이 빛 나 니
2. 죄 의 망 은 깊 어 가 고 성 난 물 결 설 렌 다
3. 너 의 등 불 들 우 어 리 거 친 바 다 비 채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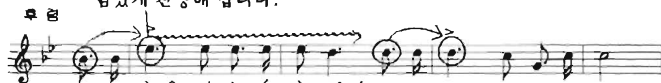
못갠 마디이므로 이곳이 강박이 됩니다.

음정에 유의하세요. -목구멍을 열고 배에 힘을 주어 받쳐서 여유를 갖고 노래합니다.



우 리 들 도 등 대 되 어 주 의 사 랑 비 추 세
어 디 불 빛 없 는 가 고 찾 는 우 리 많 구 나
빛 을 찾 아 헤 매 는 이 생 명 선 에 건 저 리

부절에 반력을 받아 계속적으로 힘있게 찬양해 갑니다.



우 리 작 은 불 을 켜 서 험 한 바 다 비 추 세

찬송의 결론을 맺는 가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물 에 빠 저 헤 매 는 이 건 저 내 어 살 리 세

돌어가면서(서론)

여러분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시편 본문을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선교에 관계된 중요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라면서 언제나 진취적인 빛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빛은 그들의 믿음 위에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모든 세계가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도록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교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막 16:15).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 세상 끝까지 비출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39a).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배운다.
- ②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시편 67편1절~3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a - 금홍

② 1절b - 복

③ 1절c - 얼굴 빛

④ 2절 - 알리소서

⑤ 3절 - 모든 민족으로

2. 다음주일 설교(‘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교회에게 주어진 주된 계획’에 대한 단원을 읽고, 교회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② ‘가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③ ‘복음을 위한 눈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왜 중요한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④ ‘복음의 씨를 뿌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선교현장에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⑤ ‘영혼을 추수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이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충현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에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 일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 중심적입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여 따라오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성경본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어떻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무엇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내심의 소명을 듣게 하소서.
- ② 나라를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 ③ 복음만 전하도록 힘쓰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4 과

물주는 이, 아불로

• 찬송 / 71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본문 / 고전 3:5~9

영어가사의 원문을 보면 'All to Jesus I surrender. ~ I surrender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완전한 모든 것을 주님앞에 항복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듬으로 ♩ = 92 곡의 전반에 걸쳐 흐르는 잔잔한 리듬입니다.
매우 부드럽게 이어가며 찬양합니다.



1. 내 게 있 는 모 든 것 을 아 낌 없 이 바 치 네
2. 내 게 있 는 모 든 것 을 겸 손 하 게 바 치 네
3. 내 게 있 는 모 든 것 을 주 물 위 해 바 치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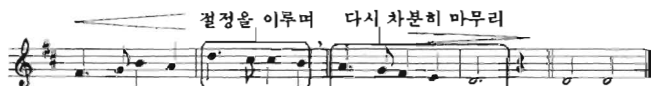


사 랑 하 고 의 지 하 여 주 만 따 라 가 겠 네
세 상 복 락 알 리 하 니 나 를 받 아 줄 소 서
크 신 권 능 충 만 하 게 내 게 내 려 줄 소 서

음정이 점차로 내려가는 선율이지만 느낌이 쳐지거나 가라앉게 되면 안됩니다. 오히려 점차 위를 향하여 경배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찬양합니다.



주 께 드 리 네 주 께 드 리 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사 랑하 는 구 주 앞 에 모 두 드 리 네 아 멘

들어가면서(서론)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실천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아볼로는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꽃이 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복음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눈이 멀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되어지기 전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인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다른 종들은 바울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주의 말씀을 심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한편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본문을 통해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아볼로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배운다.
- ② 아볼로처럼 뭇 영혼을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전서 3장 5절~9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5절 - 무엇이뇨

② 6절 - 오직, 자라나게

③ 7절 - 오직 자라나게

④ 8절 - 자기의 상

⑤ 9절 - 하나님의

2. 다음주일 설교(‘물주는 이, 아블로’)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아블로의 연약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아블로에게 있는 한계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문제인지 말해 보십시오.

② ‘아블로의 장점’에 대한 단원을 읽고, 아블로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③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단원을 읽고, 불완전한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④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차이를 말해 보십시오.

-
- ⑥ '자신을 부인함으로'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돌아오는 주일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타오르는 열정과 신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십일조, 그리고 제물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를 완전히 의지하십시오. 매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십시오. 언제나 그를 인정하십시오. 순간 순간마다 주를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의 식탁을 기억하고 믿음을 나누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아멘.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 ②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 ③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목:

본문: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마 28:18-20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각장애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당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가 도	당 같이
주 기도	당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각장애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현의 만나 · 2003년 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장 훈(1-6일), 임현덕(7-12일), 이희식(13-18일),
최중철(19-24일), 하중철(25-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총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32-9400) [비매금]
